

RR 2012-04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책임자 조 대 연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책임자	조 대 연(고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권 재 현(평생교육진흥원)
공동연구원	김 재 현(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신 혜 연(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조 윤 정(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홍 순 현(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 리 말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시간제등록제는 고등교육을 개방하여 성인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제(Part-time)로 대학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대학과 직장, 대학과 교육훈련기관 간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간제 등록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일면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생 과다모집, 부실한 학사지원, 소수대학 편중 운영, 사설 대행업체에 의한 학사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질 제고를 위한 개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된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탐색 및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의 전환, 수도권 대학으로의 등록생 편중현상 예방조치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제등록제 개선방안을 통해 재직자 및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의 생태계 조성, 학력과 경력의 호환, 학령기 학생과 성인을 아우르는 유연한 평생학습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학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9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신현석

연구 요약

시간제등록제는 학생이 필요에 따라 대학에 시간제(Part-time)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과 직장, 대학과 교육훈련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2007년 이래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간제등록제는 등록생 과다 모집, 부실한 학사지원, 소수대학 편중 운영, 사설 대행업체에 의한 학사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질 제고를 위한 개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된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을 탐색 및 제안하고자 한다.

시간제등록제는 고등교육을 개방하여 성인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시간제 등록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의 과다한 모집으로 인한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이후 시간제 등록제의 부적절한 운영 차단 및 제도 개선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은 질 관리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낮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간제 등록제의 제도 개선방향은 ‘열린교육, 평생학습’ 비전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신뢰회복, 학습자의 접근성·수월성 제고, 시간제등록제 내실화·선진화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등록제의 고유 취지를 되살리며 대학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바탕으로 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회복과 더불어 시간제등록제의 비전을 실현하고 고유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시간제 등록제와 관련한 정책은 당분간 질 관리에 역점을 두고 평생학습의 공공기반을 크게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장기적으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은 물론 그 학습결과의 인정도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제등록제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입학정원 제한 조치와 함께 사설 대행업체 위탁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사후 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학점인정의 세부기준)를 개정하여 법에 의한 학점인정 기관이나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이 다른 기관이나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업일수와 학생선발 등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이외의 부분은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생의 학습결과 인정을 각 대학의 장이 주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이 책무성을 갖고 학생을 관리하고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시간제등록제는 궁극적으로 그 운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개별 대학이 수업을 주관하되 학점 인정은 학점원에 따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에 제도 운영뿐 아니라 그 학습결과의 인정에 관한 권한까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생 정원의 범위 제한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시간제등록제의 모집단위를 ‘정원 외 입학’ 트랙으로 이동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할 것을 권한다([그림 V-2]참고).

넷째, 시간제등록제의 모집단위를 ‘정원 외 입학’ 트랙으로 이동할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의 등록생 편중현상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지방대학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시간제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인원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의 두 가지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다섯째, 학사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부실운영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즉 행정처분 조치 표준(안)등을 마련하여 학사관리 부실, 시정명령 불이행, 학점인정 기준 위반 등 부적절한 운영사태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사항의 중대성과 적발 회수에 따른 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등으로 지정된 대

학에 대해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장기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시간제 등록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규 학생에게도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직 종사자가 많고 비학령기 연령대가 많은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반보다는 시간제등록제를 전담하는 별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5
	1. 대학 시간제등록제 현황 및 문제점	16
	2. 대학 시간제등록제 해외 사례 분석	23
	3. 일본의 시간제등록제	23
	4. 해외 선진화 사례에 대한 종합 및 시사점	24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7
	1. 전문가 패널	27
	2. 델파이 설문지 개발 및 분석방법	28
	3. 자료 수집	30
IV	연구결과	31
	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31
	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4
	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36

4. 부문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분석.....	49
-----------------------------	----

V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7

	참고문헌	62
--	-------------	-------	----

	부 록	63
1.	Delphi 참여 전문가 명단.....		65
2.	Delphi 설문지(1, 2, 3 차).....		66

표 목 차

<표 II-1> 국내 4년제 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6
<표 II-2> 국내 전문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7
<표 II-3> 국내 지역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시간제등록제	8
<표 II-4>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9
<표 II-5>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현황	9
<표 II-6>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	11
<표 II-7> 2011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제 학교 운영실태	12
<표 II-8> 등록인원 기준 상위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등록인원 현황	12
<표 II-9>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과의 비교	15
<표 III-1> 전문가 패널 현황	28
<표 III-2> 전문가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29
<표 III-3> 텔파이 조사 설문지의 발송 및 수집 기간	30
<표 IV-1> 2차 텔파이 분석 결과	34
<표 IV-2>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순위	37
<표 IV-3>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에 대한 중요도 순위	40
<표 IV-4> ‘학습자지원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순위	41
<표 IV-5> ‘선진화된 운영기준’에 대한 부문별 중요도 순위	42
<표 IV-6> ‘학습자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문별 중요도 순위	44
<표 IV-7>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우선순위	45
<표 IV-8>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우선순위	46
<표 IV-9>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47
<표 IV-10>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48
<표 IV-11>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49
<표 IV-12>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50
<표 IV-13>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51
<표 IV-14>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52
<표 V-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 현행 및 개정(안) ...	57

그림 목 차

[그림 II-1] 국내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 변화	7
[그림 II-2] 국내 시간제등록제 지역별 현황	8
[그림 II-3] 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제 부실운영 구조	14
[그림 V-1] 학점은행제 학점원 연도별 비율 변화	56
[그림 V-2] 시간제등록제 모집단위 변경 예시	5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생 100세 시대’로 표현되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선취업 후진학’, ‘고졸 취업’ 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존 지식으로 평생직업을 유지하고 인생2모작을 설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마당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와 같은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위취득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간제등록제(Part-time Student Program)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위원회 제2차 보고에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학생이 필요에 따라 대학에 시간제(Part-time)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과 직장, 대학과 교육훈련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도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13개 대학에서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후 1998년부터 전국 대학에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관도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기관 학생이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입학하면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곽중문, 2000).

그리고 2007년 1월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 운영활성화방안」이 시행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성인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별도반’ 신설(입학정원의 10% 이내)을 허용하였으며, 주말 집중수업과 원격수업 등 유연한 수업방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10년 학점은행제 학점원 중 시간제등록제가 30.7%를 차지하였고, 2011

년 1학기 기준으로 누적 등록인원이 1,175,705명을 기록하는 등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1학기 등록인원을 보면 사이버대학 23,803명, 4년제 대학 19,889명, 전문대학 17,143명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평생학습 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언급되는 시간부족, 교육기관에의 접근성 부족, 근무시간과의 충돌 등을 해소하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 실제 참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첫째,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으로 인한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등록인원 기준 상위 10개 대학에서 총 등록인원의 92%를 모집하는 등 소수대학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설 대행업체에 학습자 선발, 수강신청, 학사관리 등 대학의 본질적 기능까지 위탁하여 운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시간제등록제 운영의 질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다. 따라서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등록생 초과 모집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인원 상한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 강화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시간제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상한 설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통합반·별도반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수도권은 통합반·별도반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제안했다. 둘째, 사설 대행업체 위탁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학 여건에 비해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실운영대학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시간제등록제 학습자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간제등록제 개선방안을 통해 재직자 및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이룰 수 있으며, 학력과 경력이 호환되고, 학령기 학생과 성인을 아우르는 유

연한 평생학습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제등록생의 증가는 전통적인 대학생 위주의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적 요구는 전통적 대학생의 요구와 다를 것이다(채재은, 2008). 문영미와 박호근(2009)은 e-learning 시간제등록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시스템 관련 요인들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시스템이 이 시점에서 시간제등록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된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을 탐색 및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현행 시간제등록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선진화된 운영을 위해 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은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 2) 대학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목적 달성 및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간제등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도별, 기관별로 시간제등록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선진화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에 함의를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Part-Time제, 영국의 시간제등록제, 일본의 과목 등 이수제도를 살펴본다.

셋째,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된 실행을 위해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범위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시간제등록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용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추진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국내외 문헌연구

시간제등록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세미나 자료, 보도 자료 등의 국내문헌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시간제 등록제 유사사례 및 법령에 대해 최근 문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나. 델파이 기법

대학 시간제등록제 선진화 운영기준 및 학습자 지원 시스템 제안을 위해 시간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관계자와 평생교육 관련 연구자 그리고 대학교수급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현재 시간제등록제 운영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화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을 제시하면 좋은지와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어떤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진은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방식의 기준으로서의 적합성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피드백을 각각 수집하였다. 이후 2차 델파이는 각 운영 방식과 학습자지원 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동의정도를 구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산출하고 선진화된 대학 시간제등록제를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지원 시스템 항목에 대해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델파이에서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정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시간제등록제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가. 대학 시간제등록제 현황분석

본 연구는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학습자들에게 대학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강하도록 한 제도인 시간제등록제를 다루고자 한다. 시간제등록제는 학점은행제와 더불어 성인 고등교육의 대안적 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며 등록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재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전일제등록 학생들을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시간제 등록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시간제등록제는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학 및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안규철·신재철, 1999).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및 등록인원 등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별 학칙으로 규정하되, 재학생과 시간제등록생의 통합으로 편성 및 운영되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운영되는 별도반으로 분리 운영된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시간제등록생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여야 하며, 비수도권 대학은 통합반은 학칙으로 규정하지만 별도반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등록생은 학기 당 최대 1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학점 당 이수시간은 고등교육법 21조에 의거하여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또한 수업방법은 고등교육법 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통합반과 별도반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별도반의 경우 수업일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학점인정이 가능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바 목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학점이 인정된다. 온라인 학점 취득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나 대학의 경우 대학 학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부실 운영대학에 대한 이행실태 여부 점검으로 관리한다.

<표 II-1>은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국내 4년제 대학의 추이와 시간제등록생의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는 4년제 대학교의 수는 1998년 1학기에 37개 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55개 학교, 2007년 64학교로 증가 추세였으나 2009년 47개 학교로 급감하였다. 이후 2011년 1학기 조사 결과에서는 54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등록제로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는 1998년 시작 당시 1,676명이었으나 2003년 4,901명, 그리고 2008년에는 142,51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1년 1학기 조사결과 19,889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기관의 감소추세는 최근 부실운영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등록인원의 급감은 대학들이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단지 해당대학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체제개선이나 학생 지원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지원학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 국내 4년제 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학기)
운영기관	55	53	55	57	64	63	47	61	54
등록인원	4,901	4,635	4,292	11,652	78,538	142,511	106,221	98,108	19,88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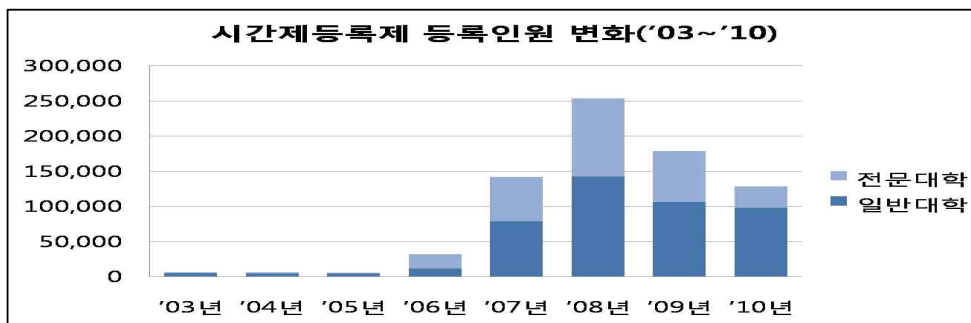
다음의 <표 II-2>는 국내 전문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수는 1997년 4개 학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35개교, 2008년도에는 43개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29개교로 감소하였다.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도 1997년 당시는 49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10,866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이며 2011년 1학기에는 17,143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다. 이를 볼 때 전문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역시 4년제 대학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2> 국내 전문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학기)
운영기관	35	37	34	37	38	43	39	29	32
등록인원	1,477	1,539	1,498	20,002	63,412	110,866	72,576	30,160	17,14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8)



※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을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은 제외함

[그림 II-1] 국내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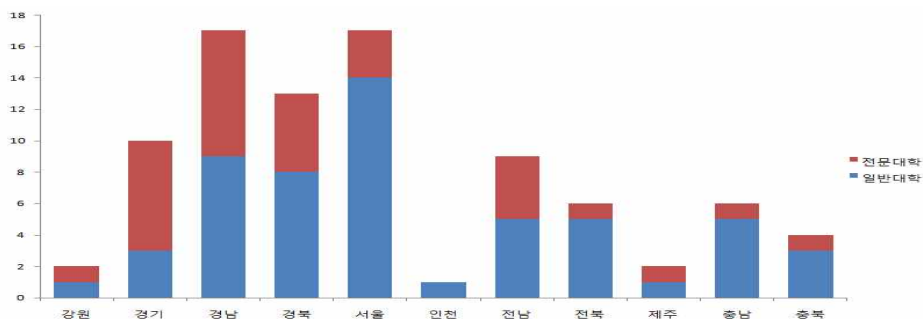
다음 <표 II-3>는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가장 많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상남도로 각각 17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9개교, 경상북도가 8개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경상남도가 8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 7개교, 경상북도 5개교로 확인되었다.

<표 II-3> 국내 지역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시간제등록제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일반대학	14	3	1	5	3	9	8	5	5	1	1
전문대학	3	7	0	1	1	8	5	4	1	1	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8)

[그림 II-2]에 따르면 서울과 경상남도에서 시간제등록제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상북도와 경기에서도 높은 비율로 시간제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 강원, 인천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 II-2] 국내 시간제등록제 지역별 현황 (2011년도 1학기 기준)

2)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 제 22조 기거 “누구든지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증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추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1학기 조사 기준으로 총 21개의 사이버대학이 운영 중이며 다음의 <표 II-4>는 시간제등록제를 시행하는 운영기관의 추세와 등록인원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4>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관 및 등록인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학기)
운영기관	16	17	17	17	17	17	15	20	21
등록인원	8,910	38,730	83,372	83,231	34,706	31,334	42,597	39,620	23,80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1.8)

사이버대학을 포함하여 원격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과는 달리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구성된 별도반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간제등록생 정원의 경우 편제 정원 범위 이내에서 선발·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등이 편제 정원 이내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열린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는 해당대학의 재학생보다 오히려 시간제등록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모집정원을 초과한 시간제 학생 선발은 학생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감소, 원격교육 시스템 불안정, 학점의 질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표 II-5>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현황

학교명	편제정원	재학생수			시간제 등록생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경희사이버대학교	9,600	6,165	529	6,694	182
대구사이버대학교	2,400	2,213	282	2,495	96
세종사이버대학교	7,200	5,957	1,166	7,123	522
세계사이버대학교	2,600	2,338	224	2,562	1,573
열린사이버대학교	4,000	1,278	17	1,295	1,530
영남사이버대학교	2,400	531	1	532	913
영진사이버대학교	1,600	1,557	309	1,866	1,591
한국사이버대학교	6,600	4,208	35	4,243	381
한양사이버대학교	8,800	7,374	790	8,164	12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07년 기준)

마지막으로 시간제 등록제는 시간제등록생이 매학기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여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8년이란 시간이 필요한데 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제등록생이 소속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학점 중 상당부분이 학점은행제로 유입되는 실정이며 학점은행제 전체 인정학점 중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학점이수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학점취득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장벽이 완화된 온라인 강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나. 대학 시간제등록제 문제점 분석

시간제 등록제는 2007년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 운영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성인 고등교육의 대안적 기회로 활용되며, 등록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 이면에는 지방대학이 재정적 극복수단으로 활용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와 기본적인 인력이나 시설, 관련절차도 갖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본질적 기능조차 훼손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 시간제 등록제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피고자 한다.

1)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으로 구성된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되는 별도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아래 <표 II-6>에서처럼 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 입학정원 100분의 10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별도반은 총 입학정원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나, 통합반 경우 학칙으로 규정한 별도의 인원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표 II-6> 시간제등록제 등록인원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구분		등록인원	
		통합반	별도반
일반대학	수도권	입학정원의 10% 이내	
	비수도권	제한 없음 (학칙에 규정)	입학정원의 10% 이내
원격대학*		편제정원 범위 내	운영 불가

*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 10)

이에 따라 특히 등록인원 상한이 없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학생을 포함한 “통합반”, “별도반” 분리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재정난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시간제등록생을 과다로 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진행된 시간제등록제 실태점검 결과, 호남대, 김천과학대, 창신대에서는 “통합반”으로 운영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규학생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선발 정원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강의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로 등록인원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총 수용 및 관리가능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7>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입학정원에서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로 인원을 초과 선발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이들 학교에는 모집단위별로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정하도록 학칙을 수정·보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1년간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정지하는 행처제제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상한을 법령에 규정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표 II-7> 2011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제 학교 운영실태

학교명	입학정원 (A)	모집인원 (B)	초과모집인원 (B-A)	비고
경북외국어대	150	4,943	4,793	‘11년 행정제재
명신대	200	1,700	1,500	"
예원예술대	245	4,000	3,755	"
한일장신대	300	6,800	6,500	"
고구려대	1,022	7,000	5,978	"
계	1,917	24,443	22,52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2011.08)

2) 일부 학교에의 시간제등록제 인원 편중현상

2011년 1학기를 기준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 총 107개 중 등록인원이 500명 이상인 학교는 총 19개로 확인되었다. 그 중 일반대학은 전국 54개 중 6개교, 전문대학은 전국 32개 중 4개교, 사이버대학은 전국 21개 중 9개교가 해당되었다. 특히 이 학교들은 시간제 등록제 총 등록인원 60,835명의 90.6% (55,087명)을 모집하였다. 이로부터 시간제등록제 운영이 일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심하며, 학점 장사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 실태는 아래 <표 II-8>와 같다.

<표 II-8> 등록인원 기준 상위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등록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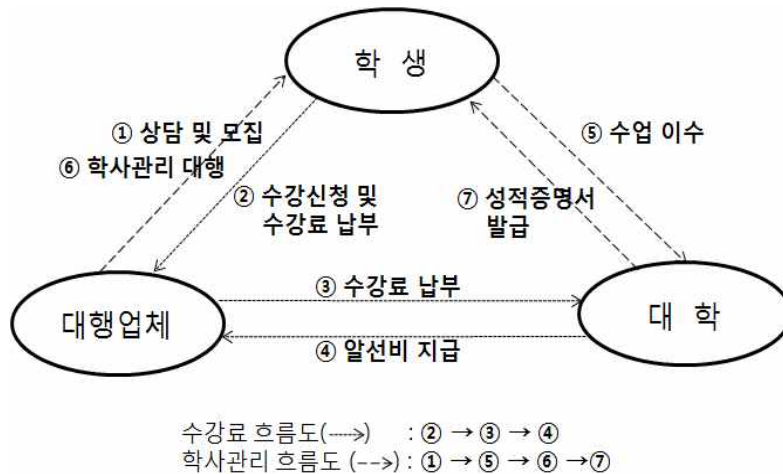
	구분	학교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간제등록제 등록 총 인원 (명)
1	일반대학	경북외국어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4,943
2		명신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1,700
3		영동대학교	비수도권	출석	502
4		예원예술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3,868
5		우석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850
6		한일장신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6,454
일반대학		54개 기관 중 6개			총 19,889 중 18,135

1	전문대학	고구려대학교	비수도권	혼합	7,850
2		군장대학교	비수도권	출석	2,357
3		김천과학대학	비수도권	출석	3,032
4		창신대학	비수도권	출석	2,495
전문대학		32개 기관 중 4개			총 17,143 중 15,734
1	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수도권	원격	1,082
2		대구사이버대학교	비수도권	원격	5,500
3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수도권	원격	2,623
4		부산디지털대학교	비수도권	원격	2,131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수도권	원격	800
6		서울디지털대학교	수도권	원격	4,507
7		세계사이버대학교	수도권	원격	2,397
8		열린사이버대학교	수도권	원격	1,561
9		한국사이버대학교	수도권	원격	617
사이버대학교		21개 기관 중 9개			총 23,803 중 21,218
총 합		107개 기관 중 19개			총 60,835 중 55,08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10) 참고

3) 사설 대행업체에 의한 시간제등록제 운영

시간제 등록제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발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지역여건 및 낮은 학교 인지도 등을 이유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에서는 사설 대행업체에 학습자 모집과 선발을 위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행업체에서는 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학습자들을 모집 및 대학에 알선한 후 수업료의 약 60%를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알선수수료 취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를 위한 교육비의 재투자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제 부실운영 구조는 아래 [그림Ⅱ-3]과 같다.



[그림 II-3] 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제 부실운영 구조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8)

[그림II-3]에서 알 수 있듯이 대행업체는 단순히 학습자 대행모집 뿐만 아니라 학습 설계,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까지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출석이나 대리시험 등 전반적인 학사관리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잘못된 학습설계나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토로하는 사실 대행업체에 대한 민원 내용은 수강신청 이후 대행업체가 사라져버린다거나 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요청에 대한 조치 거부 등이 빈번하다. 그러나 수강생이 직접 교육훈련기관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 대행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근거가 부재하여 민사관계로 해결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사관리지침으로 대행업체를 통한 학생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 및 학습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 상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의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규정

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대학이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와 연계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4) 부실한 학사관리 및 질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대학에서는 시간제 등록제를 사설 대행업체에 의존하여 학교 자체의 학생모집,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원 수급계획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검토나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래 <표 II-9>에서 나타나듯이,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는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사이버대학과 달리 평가 인정 절차나 설립인가 등 운영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학사관리지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학습의 질 관리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표 II-9>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과의 비교

구 분	외부 통제장치	운영규정	공인인증서, IP 관리	교수 1인당 학생수
시간제등록제	없음(자율운영)	학칙	없음	제한없음
학점은행제 원격평가인정 기관	평가인정	평가인정기준, 학사관리지침 등	필수	240명
사이버대학	교과부 인가	사이버대 설립 · 운영규정, 학사편람 등	필수	200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자료 (2011.07)

또한, 부실 운영 대학에서는 학점은행제 훈련기관과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공인인증서나 IP인증처럼 학생의 신분을 보호·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다. 이는 대리출석,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시스템으로 학사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실제로 2011년 시간제 등록제 운영 대학 실태 점검에서 건동대학교, 광신대학교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스템, 중복 IP 체크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고, 제출된 중간고사 응시현황 자료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IP로 응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대리시험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온라인학습관리 시스템(LMS)의 기본적인 기능 및 출석·성적관리 부재는 학습자의 불만과 취득 학점이나 취득 학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과도한 수강인원 탓에 교수 1인당 관리 학생 수에 제한이 없는 점 또한 학습의 질적 수준 저하에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시간제등록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교수자는 최대 수천 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된다. 당연히 학생 개개인에게 학습 상태 및 과제물 등에 대해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많은 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학습을 진행 중이나 과도한 수강인원 탓에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지는 보육실습 등 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무척 제한되어 있어 학습기회가 박탈되고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대학 시간제등록제 해외 사례 분석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성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 개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 개방화 정책은 고등교육기관 유형의 다양화와 대학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일제 등록 외에 나이,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간제등록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등록제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정규 고등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등록생들은 전일제등록 학생과는 차별되는 ‘비정규학생’으로 대우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모두 시간제 등록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입학절차와 교내복지 등에 있어 시간제등록생과 전일제등록생 간의 구분이 명확한 국내실정과 달리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성인학습자에게 정규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학생과 차별 없는 학위수여, 학습자 중심의 강의시간 편성 등을 통해 수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직업경험,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개인경험의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모두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간제등록제(Part-time 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제도의 명칭은 다르나 시간제등록제의 성격을 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학생 이외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과목등 이수제’를 실시 및 운영하는 중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시간제등록제의 운영 실태 및 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시간제등록제

미국의 시간제등록제는 고등교육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직장 또는 경제적 이유로 전일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란 야간제, 계절제, 학점교류제 등 다른 제도와 함께 대학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속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을 수업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발절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12학점”이며, 이에 따라 12학점 이상을 신청하는 학생은 전일제등록생, 12학점 미만을 신청하는 학생을 시간제등록생으로 규정한다. 미국 NCES(미국교육통계청)은 시간제등록생을 전일제 등록 학생 이수학점의 75%이하 학점을 등록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NCES, 2006). 또한 미국 대학은 시간제와 전일제의 입학기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 후 학생들이 등록하는 수업량에 따라 시간제로 구분할 뿐이다. 다시 말해 책정된 정원 내 범위에서 대학은 시간제와 전일제에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백은순, 2007).

미국의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점교환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시간제등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 및 교양과정의 경우는 성인학습자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지원은 1970년부터 급성장하여 1992년 대학원생의

경우 전체의 65%가 시간제등록생으로 나타나는 등 고등교육분야에서 큰 영역을 형성하였다(최운실 외, 1996). 이처럼 미국이 시간제등록생의 급속한 증가는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현업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시간제로 다니는 직장인의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다(채재은, 2008). 학생의 등록금 및 시설 복지에 대해서도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전일제학생과 동일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학교부대시설 이용 등 복지차원도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의 시간제등록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되며 비학위과정은 자격증 프로그램, 학점교류과정, 교양과정으로 다시 분류된다. 주(州)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대학의 특성 상 대학에 따라 또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제등록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 전환이 자유롭지만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시간제등록제를 허용하기도 한다(백은순, 2007). 또한 미국의 대표 성인학습 교육기관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모듈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하나의 전공 내 학습목표나 학습주제에 따라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특성과 능력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백은순(2007)은 미국의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다음 세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Bloomsburg University(BU)는 교육과정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학위과정에만 시간제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비학위과정에는 교양강좌와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으며,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위취득 목적과 상관없이 시간제로 수업을 듣고 싶은 성인학습자와 시간제로 BU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후에 그 학점을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시간제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과 비학위과정에 개설되어있는 6개의 자격증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제공된다. 더 나아가 Bloomsburg University에는 제도적으로 ‘성인학습 설계사’가 상주하며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설계 및 상담을 전담하고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bleskill)의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모두 시간제등록이 가능하다. 시간제등록생은 1~11학점 범위에서 학기 내에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정보조는 학위과정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12학점부터 수강자부터 전일제등록생으로 간주하며, 12학점 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학교 입학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별하며 수시로 모집하며, 비학위과정은 정규 고등학생도 졸업장 없이 가능하며 11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학교는 Xavier University이다. Xavier University는 대학 내 별도로 “CAPS (The Center for Adult and Part-time Students)”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유연한 시간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야간프로그램 또는 주말 학위과정에 존재하며 학위취득에 관심 있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하여 무료로 학습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Xavier University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오전프로그램(day program)”은 일반 정규대학강의와 구분 없이 이루어지며, 직장인과 낮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습자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evening program)”은 특정전공(인문학사, 경영행정학사, 커뮤니케이션예술학사, 대부분의 전문학사과정)에 한하여 개설되고 있다. “주말학위과정(weekend program)”은 학사학위를 4년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문학사와 경영학사 학위과정에 한해 토요일마다 수업이 열려 성인학습자의 일정에 맞춰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위취득기회를 제공한다. 전 과정이 속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공부하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다른 대학의 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학점을 인정받아 4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학위과정은 고등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장학금 및 재정지원은 학위과정 등록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학기당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은 학생개인의 수입, 재정상태, 등록 학점 수, 학업성적 등에 따라 재정지원 수혜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영국의 시간제등록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간제등록제가 활발히 운영되는 국가인 영국에서는 시간제등록생이란 전일제등록생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학생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전일제등록생이란 평균적으로 1년에 최소 24주 동안 주당 최소 21시간을 한 기관에서 수강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강형태가 전일제등록생들이 받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전일제 수업시수에 따라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시간제등록생이라 부르는 것이다(백은순, 2007).

영국 시간제등록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재정 보조이다. 2003~2004년 의회기간 동안 고등교육 법안과 관련하여 시간제등록생에 대해서도 전일제등록생과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저소득층 시간제등록생들을 위한 연간 수업료 증진과 Access to Learning Fund의 중점대상을 전일제등록생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전환하고 시간제등록생의 참여율이 높은 교육기관에는 고등교육재정 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지원종합정책’을 2005년에 발표하기도 하였다(백은순, 2007). 이처럼 영국은 재정 보조차원에서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였으며 시간제등록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아끼지 않았다.

영국은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다시 책정하여 지원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내 복지차원 및 학교생활 지원에 대해 시간제등록생과 전일제등록생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시간제등록제의 교육과정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과 같이 모듈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시간제등록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혼합적 프로그램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데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일제등록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업이나 시간대나 장소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둘째, 자격증이나 성인계속교육으로 전일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른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전일제 과정 중 학습자가 관심 있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모듈단위의 개인적인 수강이다. 이처럼 영국의 시간제등록

제 교육은 전일제와 동일한 수업내용이라 하더라도 시간제등록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은순(2007)은 영국의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다음 세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Warwick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평생교육센터(The Centre for Lifelong-Learning)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열린 학습(Open Studies), 상담, 시간제학위과정(Part-time Degrees), 2+2학위과정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대학, 공공기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University of Warwick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학위과정은 가족이 있거나 직장을 가진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은 그들의 진도에 따라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까지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입학절차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며, 비전통적 자격인증방법, 즉 일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선발하게 된다. 또한 이전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제 학위과정을 통해 10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업은 낮 또는 야간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 내 탁아소를 운영하여 학습자들에게 육아의 편의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Hertfordshire 대학에서는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학위과정을 따로 개설하고 있으며 학위과정은 모듈단위로 운영된다. “대학우등코스졸업학위(Honours Degre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듈단위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시간제등록생은 일 년에 최대 5개의 모듈을 이수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기까지는 약 5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개인의 과거 학습경험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학습자가 고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경험에 따라 시간적 이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상위수준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시간제학위과정은 전일제학위과정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시간제학위과정 학생들은 개인의 사정에 맞게 학습계획을 다양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낮 또는 야간에 대학에 와서 직접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하

1) 초기 2년은 Warwick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학습자의 지역사회 내 칼리지에서 수학한 후 후반 2년은 Warwick대학교에서 수학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임.

는 수업시간 만큼 가정과 직장을 떠나 학습지원센터에서 학습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자율학습(private study)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입학처에서는 학생과 교수진을 직접 연결해 주고 있으며, 또한 대학 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및 직업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시간제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과정도 함께 이수할 수 있으며 “CATS(Credit Accumulation and Transfer Scheme)”를 통해 학습자는 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과정을 모듈단위의 개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ent 대학은 시간제등록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직장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녁시간과 주말 오전시간에 수업을 배정하고 있다. 대학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학진학 예비과정(Access Course)과 학위과정 그리고 그 외 전일제수업을 개인의 기호에 맞게 시간제등록제로 신청하여 듣는 과정이 있으며 시간제 학위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수료(Certificate), 2단계는 디플로마(Diploma)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학위과정(Degree)이 존재한다. 3단계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를 이수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서 앞선 두 단계와 비슷한 학습경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3단계 학위과정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다. 1단계 수료과정은 전일제등록생의 1학년에 해당되며 이 단계를 끝마치면 수료증을 받는다. 2단계 디플로마 과정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중간에서 받는 전문교육수준으로서 전일제등록생의 2학년에 해당된다. 이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3단계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취득한 학점이 360학점이 되면 학위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위를 끝마치기까지는 6년이 걸리지만 최근 6년 이내에 적절한 수준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 대학의 특징은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다양한 지도 및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시간제등록생이 대부분 성인학습자임을 감안하여 컴퓨터 기술이나 에세이 작성과 같은 일반 학업기술을 가르쳐 주는 무료 강좌를 토요일 오전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3. 일본의 시간제등록제

일찌감치 일본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욕구가 증대하였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학생의 능력, 흥미, 관심 등의 다양화 및 대학 연령층의 다양화 현상에 대응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소·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되어 왔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고등교육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인을 대학에서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1980년대 이후 교육의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 실행되고 있는 ‘생애학습 체계화 정책’이다(최운실 외, 1996).

일본에서는 종래의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며 성인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의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할 수 있게 하는 순환교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제도의 촉구 결과 대학의 개방 형태로 정규과정을 성인에게 개방한 형태와 정규과정 이외의 개방 형태로서 청강생, 연구생 제도, 대학공개 강좌 그리고 라디오, TV방송 이용 등을 제시하였다.

순환교육제도 도입 촉구에 따라 일본은 세 가지의 개방 형태로 대학을 개방하였다. 이 중 ‘청강생과 연구생 제도’는 일본 고등교육에 있어 기존의 시간제등록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 전체 단위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학과는 달리 대학에서 수업의 일부를 이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말하는 시간제등록제와 일맥상통하는 일본식 제도는 ‘과목등이수생’ 제도이다. ‘과목등이수생’ 제도는 전일제 학생이 아닌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1991년에 대학설치 기준의 개정에 따라 등장한 제도로 31조 “대학은 대학이 정하는 대로 당해 대학의 학생 이외의 자, 혹은 복수 수업과목을 이수하는 자에게 단위를 줄 수 있음”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실시해 왔다. 일본은 일본 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정규과정 학생들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목등이수제’를 대학에서 실시하며 이 제도를 통해 단위를 이수한 학생은 후에 대학의 정규과정에 입학했을 경우 그 취득 단위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각 대학의 과목등이수제의 확대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 평가수준, 실시체계 및 방법, 고등교육제도 전체에 걸쳐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연구의 미비함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제등록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해외 선진화 사례에 대한 종합 및 시사점

시간제등록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비가 부족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제는 대학 문호의 실질적 개방이며 정규고등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근로자, 중퇴자, 진학탈락자, 노인, 주부 등에게 교육복지차원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송병국, 1997).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시간제등록제 운영현황은 제도적·상황적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연한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통해 성인에게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 실태분석을 통해 평생교육 증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간제등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간제등록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간제등록제는 시간제학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대학에서 정규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일부를 선별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간제등록생은 과목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수업시간대가 정규학생 중심으로 편성되어 출석률이 저조하다. 저조한 출석률은 낮은 학업성과로 이어지며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과 참여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시간제등록제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시간표

의 편성, 다양한 교과목개설로 듣고 싶은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 확대, 학기별 수강 신청 제한 학점폐지 등을 고려해 야 한다.

그리고 1, 2학기 정규학기에 한정된 시간제 교육과정운영에서 벗어나 다(多) 학기 제도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학동안 이루어지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또는 2~3주기간의 집중프로그램, 주말학위과정, 열린 학위과정, 교외 학위과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제학위과정은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산업체 간의 연계가 뒷받침 된다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수요에 부응한 고등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직업현장과 밀착된 고등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무중심의 2년제 전문학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거친 후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장려한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특히 기업들과 협력하고, 학생들에게는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최상덕, 2007).

둘째, 각 대학은 시간제등록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시간제등록생의 복지와 권리를 전일제등록생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간제등록제 운영 하의 학생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간제등록생에게 대학의 도서관과 기타 여학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고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학생지원에 적극적이지 않다. 2007년 미국 연방정부의 개혁방안에서는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시간제등록생과 전일제등록생간의 차등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채재은, 2007),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서는 의무적으로 시간제등록생 전담부서 및 직원 그리고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고 학습설계 및 학업, 진로상담, 교내시설 이용방법 설명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각 대학마다 전담부서의 의무적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학점은 행제의 운영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식의 체제를 도입하여 학습설계 및 상담, 각종 증명서발급 등 대행업무처리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시간제등록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인 학점 당 등록제를 추진해야 한다. 학점 당 등록제는 학생이 등록하는 시간 또는 학점 수에 따라 학생의 납입금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점 당 등록제는 시간제학생에게만 해당되고 전일제학생에게는 학기 당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점 당 등록제는 시간제등록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일제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강하는 수업시간과 학점 수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 학기에 9학점을 수강하는 학생과 20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이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이러한 경직된 등록금 부담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비싼 등록금은 고등교육에 입문하는 학습자들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기당 등록금 정책은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하고 교육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다. 학점 당 등록제가 전일제등록생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학위과정 내에서 전일제를 중심으로 시간제등록제가 잘 어우러져 운영 될 것이며 이는 곧 시간제등록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확대의 취지에서 시간제등록제의 대상과 자격을 구체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도 시간제등록 강의를 개방하고 있다. 물론 비학위과정과 교양과정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간제등록제를 고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한다면 대학입시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의를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고전환 및 동기부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제등록제 입학자격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시간제학위과정 입학전형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제등록제를 위한 학위과정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학위과정 입학자격과 전형방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 내에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해야한다. 전통적인 입학전형방식인 고교내신, 시험성적에서 탈피하여 취업경력, 자기소개서, 추천서, 심층면접, 잠재성 등을 기준으로 시간제학위과정 등록자를 선발하고, 비학위과정 시간제이수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17세 이상의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학위과정 시간제 이수결과는 후에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시 입학전형에 가산점이 되거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간제등록제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과 입학전형이 체계화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자격의 다양한 수요를 갖는 학습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제등록제는 대표적인 평생학습제도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선진화된 대학 시간제등록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기준과 학습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행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생교육 및 시간제등록제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 및 종합하고, 판단을 추출하여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토론을 반복적인 설문 실시로 대체하고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객관적인 의견 합치를 유도한다. 그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패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설문조사에 참여할 패널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각 개인의 전공분야 및 관심, 전문적인 지식, 대표성 및 적절한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3회의 설문조사 반복 수에 따른 패널들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하여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패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은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혹은 시간제등록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총괄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로 구성하였다. 총 11명의 패널이 선정되었고, 세부적으로 국가 연구기관 소속은 2명, 학계 소속은 9명이었다. 전문가 패널의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전문가 패널 현황

구분	소 속	직위
연구기관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원
학계 (9)	서울대학교	조교수
	건동대학교	시간제등록제 담당교수
	성덕대학교	시간제등록제 담당교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공주대학교	조교수
	공주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조교수
	한양여자대학교	부교수
	경희대학교	조교수

2. 델파이 설문지 개발 및 분석방법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현행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로부터 최대한으로 다양하고 고유한 의견을 구하고자 비구조화된 개방형 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첫째,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위한 개선된 운영기준과 둘째,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패널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2차 설문지의 경우, 1차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연관성 있는 항목들로 구분 및 분류 후 구조화된 설문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이에 2차 설문의 총 설문문항은 41개로 종합되었고, 전문가 패널로 하여금 각 의견에 대한 적합도 정도를 Likert 6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2차 설문 결과 각 설문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Contents Validity Ratio: CVR) 값을 활용하였다. CVR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CVR = \frac{N_e - N/2}{N/2}$$

위 공식에서 N_e 는 특정문항이 향후 개선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이고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 N 은 전체 응답자 수를 의미한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전문가의 응답자 수는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값(CVR)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참여 전문가의 수에 따른 문항별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은 다음의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 전문가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전문가 수	CVR 최소값
5	.99
6	.99
7	.99
8	.75
9	.85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위의 <표 III-2>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므로 각 설문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은 .59로 파

악되었다.

3차 델파이 설문지는 2차 설문에서 의견별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인 .59를 충족하지 않는 일부 문항들을 삭제하고 일부 항목의 진술을 수정하여 2차 설문지의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범위에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총 36개의 설문 문항으로 종합되었으며 3차 델파이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 설문문항별 중요도를 조사하고, 실제 시간제등록제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채택될 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작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차수마다 이메일을 통해 자문의뢰서 한과 함께 전문가 패널에게 발송한 후, 추후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응답을 독려하였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조사의 자료수집 현황은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발송 및 수집 기간

조사단계	발송 및 수집기간	발송 및 수집방법	응답률
1차	2012.05.14.-05.21.	이메일	100%
2차	2012.05.29.-06.03.	이메일	100%
3차	2012.06.09.-06.12.	이메일	100%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현행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차수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차수별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대학 시간제등록제를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를 모두 기록, 정리한 후 유목화 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항목들을 구성하여 총 41개로 정리되었다. 각 항목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서로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첫 번째 설문 주제인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위한 개선된 운영기준’은 3개 범주인 ‘행정관련 운영방식’, ‘학사 관련 운영방식’, ‘학점관련 운영방식’으로 나뉘었다. 두 번째 설문 주제인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은 2개 범주인 ‘온라인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들과 ‘학습자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진화된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 기준

1) 행정관련 운영방식

1차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패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의 행정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우선적으로 학생선발을 비롯하여 수업진행, 학생관리 등의 전 과정을 개별 대학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모집 인원을 방지해야한다는 의견,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시간제등록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따랐다.

또한, 모범적인 운영대학 및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운영 중인 대학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다양한 시간제등록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현재 통합반·별도반·온라인 등 시간제등록제 운영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각 방식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슷하게, 시간제등록제 관련하여 운영 대학은 학칙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별도반 시간제등록제의 경우, 캠퍼스 이외 지역에서의 운영을 허가하여 직장을 다니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별도반의 경우 원격교육 비율을 현재 60%에서 보다 엄격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발견되었다.

2) 학사관련 운영방식

기본적으로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학생의 신청학점, 출석현황, 시험, 현장실습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기록화 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다. 동일한 맥락으로 성적산출 관련 학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산출의 필수기준을 마련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한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1인 교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학생의 현장실습지도를 책임지는 형편이나, 현장실습지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지도교수의 능력과 권한 안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현장실습지도를 운영 규정을 확립하여 현행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교육부실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외부기관이 정기적으로 시간제등록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고, 대학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시간제등록제 관련 학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3) 학점관련 운영방식

현재 시간제등록제 운영방식에서는 학생이 수강한 이수학점이 정규학생과 같이 대학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완전한 대학 소속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교육의 질이 더욱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많은 응답자들이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해당 학교에서 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운영 자율성이 확보되고, 운영 책무성이 제고되며, 교육의 질 또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나.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

1) 온라인시스템 구축 항목

기본적으로 운영 대학별로 자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제등록생에게 상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학생들 간의 공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여러 응답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우선적으로는 시간제등록제와 관련한 운영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학사기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커뮤니티나 교류 네트워크와 같은 학생활동을 촉진하는 학생활동 시스템을 확립하여 시간제등록생들 또한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 학습자 지원 항목

우선적으로 시간제등록생에게 정규학생과 동일한 대우, 즉 학교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되게 발견되었다. 즉, 학생증 발급이나, 공간예약, 도서관 이용 등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 시간제등

록생의 학습여건을 개선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지원이나 야간행정지원처럼 시간제등록생의 특수한 학습여건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별도반 편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한, 시간제등록생의 대다수가 직장을 가진 만큼 근무경력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를 통해 학습사항을 관리하고, 학습이나 경력개발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의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41개의 항목이 향후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 및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를 여섯 단계의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CVR)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부문	요소	CVR
행정관련 운영방식	1. 시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0.82
	2.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0.82
	3.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1.00
	4.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0.82
	5. 별도반 시간제등록제 운영의 경우, 캠퍼스 외 지역에서 운영 허가	0.09
	6. 별도반 운영에서 원격교육 비율을 축소 (예) 현재 60%이내에서 40%으로	0.45
	7. 운영 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1.00
	8.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1.00
	9. 시간제등록제 관련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예) 대학 학칙에 의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1.00
	10.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0.82

	11.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0.82
	12.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 · 지원	0.82
	13. 대학의 전적인 책임 · 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0.82
	14.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1.00
	15.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0.64
학사관련 운영방식	1.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0.64
	2.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등	0.82
	3.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1.00
	4. 외부기관 주도의 의무적인 강의평가 실시	-0.09
	5.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1.00
	6.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0.82
학점관련 운영방식	1. 기존의 신청학점 제한 완화 또는 폐지	-0.27
	2.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0.64
	3.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1.00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항목	1.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1.00
	2.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1.00
	3.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1.00
	4.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0.82
	5.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0
	6.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1.00
학습자 지원 항목	1. 학교 시설 · 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1.00
	2.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1.00
	3.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1.00
	4.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0.82
	5.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0.82
	6.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1.00
	7.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1.00
	8.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0.82
	9.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0.82
	10. 근무경력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0.45
	11.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0.64

먼저 행정관련 운영방식 부문에서는 ‘별도반 시간제등록제 운영의 경우, 캠퍼스 외 지역에서 운영 허가’, ‘별도반 운영에서 원격교육 비율을 축소’의 의견이 내용타당도(CVR)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나머지 13개 의견들은 모두 내용타당도의 최소값이 충족되어 3차 델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학사관련 운영방식 부문에서는 ‘외부기관 주도의 의무적인 강의평가 실시’ 의견이 내용타당도(CVR)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고, 나머지 5가지 의견들은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이 충족되어 3차 델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학점 관련 운영방식 부문에서는 ‘기존의 신청학점 제한 완화 또는 폐지’의 의견이 내용타당도(CVR)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고, 나머지 2가지 의견들은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이 충족되어 3차 델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온라인시스템 구축항목 부문에서는 6가지 의견들 모두 내용타당도(CVR)를 충족시켜 3차 델파이 분석에 모두 활용되었다. 또한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의견의 경우 ‘근무경력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제외되었으며 이 외에는 모두 내용타당도(CVR)의 최소값을 만족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용타당도 값이 1.00인 항목들은 전문가 패널 11인 모두가 Likert 척도 상에서 해당 항목이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로 응답한 경우이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항목들의 내용타당도(CVR) 값 1.00을 충족하였으며 이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 운영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형성되었다. 특히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적합도 동의정도가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정규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시간제등록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특수한 학습여건을 배려하여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관측되었다.

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수렴된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항목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중요도 순위

1)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순위

3차 델파이 조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은 총 36개였으며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순위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중요도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에 근거하였다.

<표 IV-2>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순위

순위	항목	평균
1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4.82
2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4.73
3	대학 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4.55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4.55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4.55
6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4.45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4.45
8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4.36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4.36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4.36
11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4.27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27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4.27
14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4.18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4.18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4.18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4.18

18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4.09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4.09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4.09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4.09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4.09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4.09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4.09
25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4.00
	운영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4.00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4.00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4.00
29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3.91
	시간제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3.91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3.91
32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3.73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3.73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3.73
35	전공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3.64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3.64

위의 <표 IV-2>에 나타나듯이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응답은 항목별로 최소 3.64에서 최대 4.82까지 분포를 보였다. 전체 응답의 평균은 4.15로 나타나 1순위에서 14순위까지 17개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평균 4.82로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받은 항목은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으로 시간제등록생에게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도서관, 열람실, 강의건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기존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학습자의 학습할 권리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 전반적인 ‘학사관리 강화’가 평균 4.73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학사관리 강화’는 3순위의 ‘대학 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항목과 관련되며, 사설 대행업체에 의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생 모집 및 학사 관리가 본래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3순위로는 평균 4.55인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과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이 채택되어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어야 함과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과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이 평균 4.45로 공동 6순위를 차지하며 시간제등록제생의 학습 편의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평균 4.36인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가 공동 8순위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등록제 실시에 있어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학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준과 대학별 학사정보 및 학칙 등에 대한 정보 공시로 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공통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시간제등록생의 학습 여건 배려, 학습 및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학습 지원 서비스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확인되었다.

2) 연구문제별 중요도 순위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과 ‘학습자지원 시스템 포함사항’에 대해 중요도 순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에 대한 중요도 순위는 <표 IV-3>에 나타나 있다.

<표 IV-3>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에 대한 중요도 순위

순위	항목	평균
1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4.73
2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제한	4.55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4.55
4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4.36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4.36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4.36
7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4.27
8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4.18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4.18
10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4.09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4.09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4.09
13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4.09
14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4.00
	운영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4.00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4.00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4.00
18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3.73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3.73
20	전공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3.64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에 대한 중요도 조사에서 항목별 중요도의 평균은 최소 3.64에서 최대 4.73까지 분포하고 있다.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받은 항

목은 평균 4.73인 ‘학사관리 강화’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순위는 평균 4.55인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제한’과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으로 확인되었다. 4순위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등록제 전담 부서 의무화’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학습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습자지원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순위

순위	항목	평균
1	학교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4.82
2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4.55
3	주말반과 야간반운영	4.45
	학사기능 시스템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4.45
5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27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4.27
7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네트워크 등	4.18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4.18
9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4.09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4.09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4.09
12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3.91
	시간제등록제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3.91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3.91
15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3.73
16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3.64

<표 IV-4>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지원 시스템’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최소 3.64에서 최대 4.82까지 분포하였다. 그 중 특히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들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4개 항목이었다. 중요도 1순위는 평균 4.82인 ‘학교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으로 조사되어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학교 측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순위는 평균 4.55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잠재 수요자의 수를 확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순위로는 평균 4.45인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과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평균 4.27인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학습 및 경력 개발 관련 상담 지원’ 등의 순이었다.

3) 부문별 중요도 순위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각 부문별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선진화된 운영기준’에 대한 부문별 중요도 순위

부문	순위	항목	평균
행정 관련 운영 방식	1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제한	4.55
	2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4.27
	3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4.18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4.18
	5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4.09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4.09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4.09
	8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4.00
		운영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4.00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4.00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4.00
	12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3.73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3.73

<div> <div>학사</div> <div>학점</div> <div>운영</div> <div>방식</div> </div>	1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4.73
	2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4.55
	3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4.36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4.36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4.36
	6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4.09
	7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3.64

<표 IV-5>에서 나타나듯이 ‘행정 부문’의 선진화된 운영기준에서는 항목들의 중요도 평균이 3.73에서 4.55까지 분포하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중요하다고 선정된 항목은 평균 4.55의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제한’이었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시간제등록제의 구체적 운영지침이 결여되어 부실 및 부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2순위로는 평균 4.27로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이 차지하였다. 즉,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3순위로는 평균 4.18인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점 부문’의 선진화된 운영기준은 평균 3.64에서 4.73까지 분포하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받은 항목은 평균 4.73인 ‘학사관리 강화’로 확인되었다. 2순위는 평균 4.55인 ‘이수학점을 해당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으로 나타나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대한 개별 대학의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지지하였다. 3순위로는 평균 4.36으로 나타난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습자지원 시스템’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부문별 중요도 순위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 ‘학습자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문별 중요도 순위

부문	순위	항목	평균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항목	1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4.55
	2	학사기능 시스템구축 (예) 학사일정,수업,전공,등록금,강의평가등	4.45
	3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27
	4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교류 네트워크등	4.18
	5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3.91
	6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3.73
학습자 지원 항목	1	학교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4.82
	2	주말반과 야간반운영	4.45
	3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4.27
	4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4.18
	5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4.09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4.09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4.09
	8	시간제등록제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3.91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3.91
	10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3.64

‘학습자지원 시스템’ 중에서 ‘온라인시스템 구축항목’ 부문의 중요도 평균은 최소 3.73에서 최대 4.55까지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인 평균 4.55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으로 확인되었다. 2순위는 평균 4.45인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순위는 평균 4.27인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차지하였다.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 포함될 항목으로는 ‘학교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이 평균 4.8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평균 4.45인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평균 4.27인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부문별 우선순위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 36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시간제등록제 개선방안으로 채택될 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부문별로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순위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 부문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우선순위 분석은 1순위 응답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응답을 점수화하여 종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7>에 나타나 있다.

<표 IV-7>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우선순위

순위	항목	합
1순위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27
2순위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18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18
4순위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2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12
6순위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11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11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11
9순위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9
10순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7
11순위	운영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6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6
13순위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5

<표 IV-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행정부문 운영방식에서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 의무운영’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과 ‘대학의 전적인 책임 및 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앞선 항목별 중요도 조사 결과와 합치하며 특히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함 있어 개별 대학에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 다음은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정기적인 현장점검 관리감독 강화’가 차지하였다. 즉, 운영상에 부정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가 요구되며, 현장방문을 직접적인 관찰 및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순위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 부분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우선순위

순위	항목	합
1순위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41
2순위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23
3순위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18
4순위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17
5순위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16
6순위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13
7순위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4

<표 IV-8>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학사관리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순위에 대한 요구정도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순위는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3순위는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가 각각 차지하며 개별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관측되었다. 그 다음 4순위로는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가 차지하였으며, 3순위에서 5순위까지의 항목 간에는 요구도에 대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3)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다음으로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 부문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9>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순위	항목	합
1순위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45
2순위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33
3순위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
4순위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15
5순위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14
6순위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0

전문가들은 1순위로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선 <표 IV-8>의 최우선 항목인 ‘(대학의) 학사관리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학생이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학사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어야함이 확인되었다. 2순위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다. 1순위와 2순위 항목은 앞서 <표 IV-6>에 제시된 부문별 중요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1순위와 2순위 항목 간에는 변동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3순위를 차지하였다.

4)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 부문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0>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순위	항목	합
1순위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46
2순위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28
3순위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16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16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16
6순위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15
7순위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13
8순위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8
9순위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6
10순위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0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 중에서 전문가들은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앞서 <표 IV-4>와 <표 IV-6>에서 도출된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2순위로 확인된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는 <표 IV-4>에서 전체 16개 항목 중 9순위, <표 IV-6>에서는 전체 10개 항목 중 5순위로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두드러지지 않았던 항목이었다.

그 다음 3순위로는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가 차지하였다.

4. 부문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분석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부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부문별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모두 요구되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시간제등록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 종합분석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항목	우선순위
2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1
1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2
5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2
3	사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4
8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4
3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6
8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6
5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6
5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9
12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10
8	운영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11
8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11
12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13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 5순위 이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항목을 살펴보면,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의 네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행정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을 규정할 때 대학으로 하여금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대학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시간제등록제가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간제등록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통해 운영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 종합분석

다음으로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결과는 동일하게 조사되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사관리 강화’,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의 순으로 1~3순위가 분석되었다.

<표 IV-12> 학사·학점 관련 선진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항목	우선순위
1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1
2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2
3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3

3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4
6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5
7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6
3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7

따라서 대학은 출석, 시험, 학점 등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해야 하는 점이 가장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여 성인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을 부여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 종합분석

다음으로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 3순위 이내 포함된 항목을 보면,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순위의 차는 약간 있었으나 세 항목 모두 3순위 이내로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표 IV-13>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항목	우선순위
2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1
1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2
3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5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4
4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5
6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6

따라서 학습자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을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에는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학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언제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아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학습을 결정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라.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분석

다음으로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종합분석 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 5순위 이내 포함된 항목들은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의 다섯 가지로 분석되었다.

<표 IV-14>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항목	우선순위
1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1
5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2
5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3
5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3
4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3
2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6
3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7
8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8
8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9
10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10

따라서 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점이다. 정규학생과의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시간제등록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야간 행정지원 등과 같은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를 활용해 철저한 학습관리와 상담 및 지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를 통한 학습의 연속성 보장과 학습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사회 전반에 걸쳐 ‘선취업 후진학’, ‘고졸 취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마당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와 같은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제등록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고등교육을 개방하여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등록제가 그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시간제 등록제는 고등교육체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생학습이념을 구현하는 학습체제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정책방향과 전략을 재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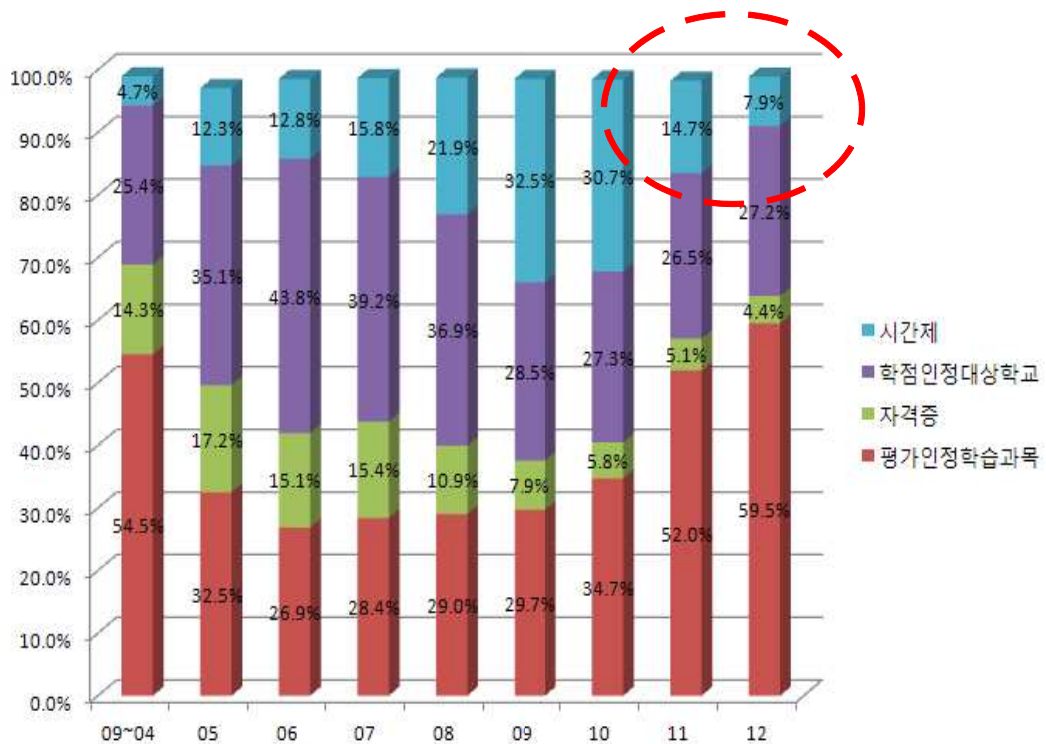
5.31 교육개혁 방안 이후 대부분의 평생학습의 이념과 제도는 ‘열린교육, 평생학습’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비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 모든 가용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경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과 적극적 시민정신 증진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시간제 등록제 역시 이 이념에 근거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구현되어 왔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비전은 교육시기의 열림, 교육장소의 열림, 교육기관간의 열림, 대학교육의 열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사회의 비전 실현을 위해 그동안 주로 제도 개혁만을 강조하다보니 학습문화의 창달과 학

습결과의 사회적 평가인정 및 활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을 강조하였고 시간제등록제 역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학위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의 공공성과 함께 동시에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평생학습의 상업화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의 상당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왔으며 제도의 운영형태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생학습의 상업화와 자본에의 예속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의 과도한 모집으로 인한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였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이러한 조치이후 학점은행제 학점원의 1/3에 육박하던 시간제 등록제 학점의 비중은 [그림 V-1]과 같이 2012년 7월 현재 7%대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시간제등록제를 둘러싼 부적절한 운영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은 질 관리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한 면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낮아져 제도 본래의 취지마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V-1] 학점은행제 학점원 연도별 비율 변화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 등록제의 제도 개선방향은 ‘열린교육, 평생학습’ 비전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신뢰회복, 학습자의 접근성·수월성 제고, 시간제등록제 내실화·선진화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등록제의 고유 취지를 되살리며 대학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바탕으로 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회복과 더불어 시간제등록제의 비전을 실현하고 고유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시간제 등록제와 관련한 정책은 당분간 질 관리에 역점을 두고 평생학습의 공공기반을 크게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장기적으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은 물론 그 학습결과의 인정도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2. 제언

시간제 등록제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입학정원 제한 조치와 함께 사설 대행업체 위탁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사후 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학점인정의 세부기준)를 개정하여 법에 의한 학점인정 기관이나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이 다른 기관이나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별표 현행 및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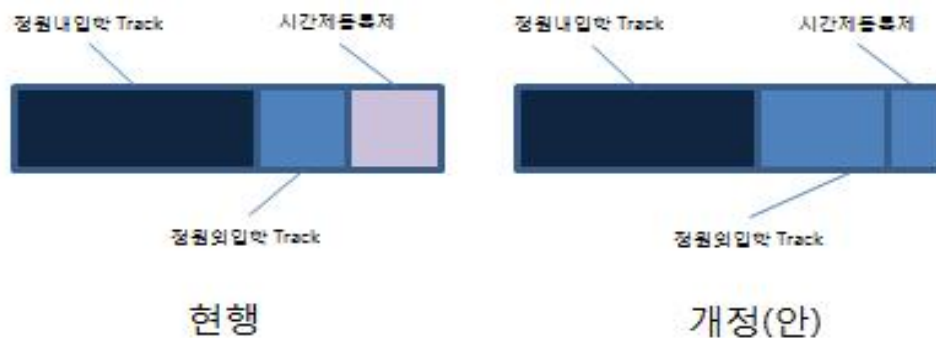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1.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위 표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합격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위 표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합격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중복되는 과목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에 의한 학점인정 기관이나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이 다른 기관이나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둘째,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업일수와 학생선발 등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이외의 부분은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학습결과의 인정을 대학의 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책무성을 갖고 학생을 관리하고 배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시간제 등록제는 궁극적으로 그 운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나의 학점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운영과 그 결과의 인정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이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이루어진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야기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학칙에 시간제등록제의 운영뿐 아니라 그 학습결과의 인정에 관한 권한까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결과의 인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정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원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시간제등록제의 모집단위를 ‘정원 외 입학’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에 특별전형 등 대학입학정원의 약 11%정도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생의 범위에 시간제 등록제를 포함시키고 입학정원의 20%정도의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되 일정범위(8~9%)를 반드시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대학 정원의 개념 안에 시간제등록제가 포함되므로 대부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제 등록제 학습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서는 수업 편성 등 관리

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간 학점원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측면이 다소 불편해 질 수도 있다. 현재 시간제등록제의 모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의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로만 규정해 대학입장에서는 정규학생과 동일한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제의 모집단위를 ‘정원 외 입학’ 트랙으로 이동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학번을 부여하고 학사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등 선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2] 시간제등록제 모집단위 변경 예시

다음으로 현행과 같이 입학정원의 10%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제등록제 입학생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의 장이 학칙에 의해 당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원으로서도 현재와 같이 인정 가능하게 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현행과 같이 대학의 책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시간제등록제의 모집단위를 ‘정원 외 입학’ 트랙으로 이동할 경우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대학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시간제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인원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의 두 가지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단계별로 시간제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1단계에서 권역별 거점대학 약 10개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거점대학을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제등록제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pilot개념으로 1단계에서 실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단계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2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외 입학’ 트랙 모집인원 중 시간제등록제 인원의 상한을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고, 지방대학의 경우 시간제등록제 인원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학칙 등에 규정한 출석수업 일수를 지키지 않고 원격수업이나 과제 제출로 대체하거나 사회복지 등 실습과목 운영 시 단 한 번의 출석 없이도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학사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점검결과 부실운영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시간제등록제 점검결과 행정처분 조치 표준(안)등을 마련하여 시간제등록제 학사관리 부실, 시정명령 불이행, 학점인정 기준 위반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사항의 중대성과 적발 회수에 따른 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등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장기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홍보 및 학습자를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등록제 학습자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간제등록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제등록제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다수 대학에서는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학습자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재직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 등 대학의 정규 학생에게도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정규 입학생에게 시간제등록제를 개방할 경우 고려해야할 부분과 선행되어야할 사항을 점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제등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직 종사자가 많고 비학령기 연령

대가 많은 시간제 등록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반보다는 평생학습중심대학처럼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는 등 별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중문(2000). 대학의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2011). 평생학습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제등록제 개선방안(안). 인재정책실.
- 문영미, 박호근(2009). e-learning에 대한 만족 및 학업성과 분석: 대학교 시간제 등록학생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6(1), 55-68.
- 백은순(2007). 학점은행제의 시간제등록제 실행방안 및 독학사 학위취득제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2007-공모(지정)-26. 교육인적자원부.
- 송병국(1997). 대학에서의 시간등록제 도입 타당성과 운영 방안.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논문, 3, 205-222.
- 채재은(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고등교육혁신. RM 2007-88. 한국교육개발원.
- 채재은(2008). 미국의 성인대학생 적응지원 사례 분석. 비교교육연구, 18(3), 155-177.
- 최상덕(2007). 영국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고등교육혁신. RM 2007-88.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 홍영란, 송병국(1996). 열린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개혁과제 연구 : 학점은행제, 시간등록제, 원격 사회교육체계 구축. RR96-07. 한국교육개발원.
- NCES(2006).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NCES.



부록

1. Delphi 참여 전문가 명단
2. Delphi 설문지(1, 2, 3차)



부록 1**Delphi 참여 전문가 명단**

성명	소속
강대중	서울대학교 조교수, 교육학 박사
김연수	건동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박상욱	공주대학교 조교수, 교육학 박사
서창진	성덕대학교 조교수, 공학 박사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신경석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전문원
신종수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실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양홍권	대구대학교 조교수, 교육학 박사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부교수, 교육학 박사
최일선	경희대학교 조교수, 교육학 박사

델파이 참여의뢰 서한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제등록제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선취업 후진학’, ‘고졸 취업’ 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평생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일환인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 연구진은 기존의 운영기준과 다른 국가 시간제등록제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델파이 기법(3회의 델파이 설문 실시)을 통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하의 고견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 발전에 귀중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와 소속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올림

【 델파이 조사를 위한 연구추진 개요 소개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등록제에 선진화를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운영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는 어떤 항목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진행사항 >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제등록제의 필요성과 기존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였으며, 역시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확인하였다.

< 향후 추진 사항 >

선행연구로부터 기존 국내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 구축을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 본 델파이를 통해 가능한 항목을 조사할 것이다. 이후 응답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이나 정보, 분석결과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설문지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 붙임 1 【참고자료】와 붙임 2의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를 숙지하시고 붙임 3 【델파이 1차 설문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설문지는 가급적 5일 안에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1. 참고자료
2.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
 3. 델파이 1차 설문지

(붙임 1) 【 참고자료 】

- 시간제등록제는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되었음. 또한 2007년 1월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운영활성화방안」이 시행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성인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등록제 수업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모집하는 별도반 신설(입학정원의 10% 이내)을 허용하였으며, 주말 집중수업과 원격수업 등 유연한 수업방식을 허용하였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10년 학점은행제 학점원 중 시간제등록제가 30.7%를 차지하였고,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누적 등록인원이 1,175,705명을 기록하는 등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더욱이 2011년 1학기 등록인원을 보면 사이버대학 23,803명, 4년제 대학 19,889명, 전문대학 17,143명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등록인원이 더 많음. 이는 평생학습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언급되는 시간부족,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 부재, 근무시간과의 충돌 등을 해소하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실제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러한 시간제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첫째,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으로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 발생
 - 둘째, 등록인원 기준 상위 10개 대학에서 총 등록인원의 92%를 모집하는 등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셋째, 사설 대행업체에 학습자 선발, 수강신청, 학사관리 등 대학의 본질적 기능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넷째, 학사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질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등록생 초과 모집을 못하도록 등록인원 상한을 설정하는 법령을 개정하였고, 정기적인 관리감독 강화 및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시간제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상한 설정
 - 비수도권 : 통합반·별도반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
 - 수도권 : 통합반·별도반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
 - 둘째, 사설 대행업체 위탁운영 금지
 - 셋째, 정기적인 관리감독 강화
 - 대학여건에 비해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 중심 학기별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부실운영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넷째, 실수요자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 활성화

(붙임 2) 【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 】

□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등

-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별도반’의 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학점인정이 가능함
- 대학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함
-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음
-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며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 교과목 이수 및 이수시간

-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여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유의

□ 수업방법

- 수업방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통합반 시간제등록생’은 반드시 재학생과 동시에 수업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은 교과목의 일부를 원격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음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09.3.10,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5호)

- 시행일 : 2009. 9. 1
- 적용범위(제3조) 학점법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는 자
- 수업방법(제6조)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 등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
- 원격교육의 비율

구 분	원격교육의 비율		
	'09.9.1~'10.2.28	'10.3.1~'10.8.31	'10.9.1 이후
원격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80% 이내	60% 이내	40% 이내
시간제등록제 별도반	80% 이내	60% 이내	

※ '10학년도 1학기부터 시간제등록제를 원격교육으로 운영 시에 일반대학에서는 반드시 출석 교육 40%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간제등록생의 신청학점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매학기 신청 학점을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학기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안배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사립학교는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하며, 국·공립 학교는 현원의 30%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음
-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음
-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국·공립은 학기개시 10일 이내, 사립학교는 학기개시 60일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

(붙임 3) 델파이 1차 설문지

‘참고자료’(붙임 1)과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붙임 2)를 참고하시어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시간제등록제 운영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화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 시간제등록제 운영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면 좋을까?

2. 대학 시간제등록제 학습자지원시스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2차 델파이 참여의뢰 서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입니다.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델파이 연구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델파이 결과 2가지 큰 주제에 대해 아래 문항들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완벽하게 중복된 것과 의미가 비슷한 의견을 합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델파이 1차에 참여하신 박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동의정도를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2차 델파이는 박사님들의 시간절약을 위하여 동의정도만을 여쭙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회수>

설문 기간: 2012년 05월 29일(화) ~ 6월 3일(일)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올림

【 델파이 조사를 위한 연구추진 개요 소개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등록제에 선진화를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운영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는 어떤 항목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진행사항 >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제등록제의 필요성과 기존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였으며, 역시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운영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기준 리스트와 학습자 지원 시스템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 델파이를 준비하였다.

< 향후 추진 사항 >

1차 연구를 통해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2차 델파이를 통해 운영기준 및 시스템 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과 시스템 항목을 확정할 것이다.

☞ **붙임 1 【델파이 2차 설문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기존 1차 설문지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것으로 가급적 2-3일 안에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델파이 2차 설문지

I. 선진화된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

부문	요소	운영방식 기준으로서의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행정 관련 운영방식	1. 시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2	3	4	5	6
	2.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1	2	3	4	5	6
	3.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1	2	3	4	5	6
	4.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1	2	3	4	5	6
	5. 별도반 시간제등록생 운영의 경우, 캠퍼스 외 지역에서 운영 허가	1	2	3	4	5	6
	6. 별도반 운영에서 원격교육 비율을 축소 (예) 현재 60%이내에서 40%으로	1	2	3	4	5	6
	7. 운영 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1	2	3	4	5	6
	8. 통합반/별도반 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1	2	3	4	5	6
	9. 시간제등록제 관련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1	2	3	4	5	6
	10.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1	2	3	4	5	6
	11.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1	2	3	4	5	6
	12.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 · 지원	1	2	3	4	5	6
	13. 대학의 전적인 책임 · 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1	2	3	4	5	6
	14.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1	2	3	4	5	6
	15.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1	2	3	4	5	6
	기타 의견란.						

부문	요소	운영방식 기준으로서의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학사관련 운영방식	1.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1	2	3	4	5	6
	2.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1	2	3	4	5	6
	3.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1	2	3	4	5	6
	4. 외부기관 주도의 의무적인 강의평가 실시	1	2	3	4	5	6
	5.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1	2	3	4	5	6
	6.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1	2	3	4	5	6
	기타 의견란.						
학점관련 운영방식	1. 기존의 신청학점 제한 완화 또는 폐지	1	2	3	4	5	6
	2.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1	2	3	4	5	6
	3.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1	2	3	4	5	6
	기타 의견란.						

II.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

부문	요소	학습자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온라인시스템 구축 항목	1.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1	2	3	4	5	6
	2.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1	2	3	4	5	6
	3.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1	2	3	4	5	6
	4.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1	2	3	4	5	6
	5.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6.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1	2	3	4	5	6
	기타 의견란						
학습자 지원 항목	1.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1	2	3	4	5	6
	2.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1	2	3	4	5	6
	3.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1	2	3	4	5	6
	4.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1	2	3	4	5	6
	5.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1	2	3	4	5	6
	6.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1	2	3	4	5	6

부분	요소	학습자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지 않다	약간 적합하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학습자 지원 항목	7.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1	2	3	4	5	6
	8.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1	2	3	4	5	6
	9.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1	2	3	4	5	6
	10. 근무경력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1	2	3	4	5	6
	11.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1	2	3	4	5	6
	기타 의견란.						

3차 델파이 참여의뢰 서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입니다.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델파이 연구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차 델파이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 연구진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신 문항들을 CVR값을 활용해 채택·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번 3차 델파이(최종)에서는 건의된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방안이 수립될 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차 델파이 기간>

기간: 2012년 06월 9일(토) ~ 6월 12일(화)

*궁금하신 점은 jhkim0126@korea.ac.kr(김재현, 010-6377-9815)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올림

【 델파이 조사를 위한 연구추진 개요 소개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등록제에 선진화를 위한 운영기준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운영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학습자 지원 시스템에는 어떤 항목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진행사항 >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제등록제의 필요성과 기존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였으며, 역시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선진화된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운영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기준 리스트와 학습자 지원 시스템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다시 CVR값을 활용하여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항목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조사를 위한 3차 델파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 향후 추진 사항 >

2차 델파이를 통해 운영기준 및 시스템 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된 운영기준과 시스템 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방안이 수립될 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한다.

☞ **붙임 1 【델파이 3차 설문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델파이 설문지는 기존 2차 설문지에서 확정된 운영기준 및 항목에 대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I-1. <선진화된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 기준>에 대한 중요도 조사

부분	요소	운영방식 기준으로서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행정관련 운영방식	1. 시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2	3	4	5
	2.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1	2	3	4	5
	3.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1	2	3	4	5
	4.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1	2	3	4	5
	5. 운영 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1	2	3	4	5
	6.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1	2	3	4	5
	7.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1	2	3	4	5
	8.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1	2	3	4	5
	9.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1	2	3	4	5
	10.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1	2	3	4	5
	11.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1	2	3	4	5
	12.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1	2	3	4	5
	13.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1	2	3	4	5

부문	요소	운영방식 기준으로서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학사·학점 운영방식	1. 전공 설치의 유연성 제고 (예) 연계전공, 융·복합과정 등	1	2	3	4	5
	2. 학사관리 강화 (예) 신청학점, 출석, 시험 등에 관한 관리 및 기록의무화 등	1	2	3	4	5
	3. 학습자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관리 의무 최저기준 수립 및 제시	1	2	3	4	5
	4.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학사정보 공시 의무화 (예) 수업료, 수업일수 신청학점 기준 등	1	2	3	4	5
	5. 현장실습지도 내실화 (예) 운영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1	2	3	4	5
	6. 대학장에게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권한 부여	1	2	3	4	5
	7. 이수학점을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1	2	3	4	5

I-2.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성>에 대한 중요도 조사

부문	요소	학습자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시스템 구축 항목	1.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1	2	3	4	5
	2.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1	2	3	4	5
	3.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1	2	3	4	5
	4.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1	2	3	4	5
	5.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2	3	4	5
	6.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1	2	3	4	5
학습자 지원 항목	1.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1	2	3	4	5
	2.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1	2	3	4	5
	3.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1	2	3	4	5
	4.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1	2	3	4	5
	5.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1	2	3	4	5
	6.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1	2	3	4	5
	7.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1	2	3	4	5
	8.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1	2	3	4	5
	9.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1	2	3	4	5
	10.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1	2	3	4	5

II-1. <선진화된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 기준>에 우선순위 조사

※ 다음은 “**행정관련 운영방식**”에 관하여 건의된 내용입니다. 아래 13개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5개**를 선택하시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요소	우선 순위
행정관련 운영방식	1. 사설 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 정기적 현장점검 관리 감독 강화	
	3. 대학운영의 부실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운영 제한	
	4. 시간제등록제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의무운영	
	5. 운영 대학을 법정교수 충원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	
	6. 통합반/별도반/온라인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침 마련	
	7. 시간제등록제 관련 대학교별 학칙 가이드라인 마련	
	8.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9. 대학 정규과정의 일환으로서 시간제 등록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 도입	
	10. 운영 우수대학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11. 대학의 전적인 책임·권한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12. 과도한 시간제등록제 모집 방지	
	13.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원격강좌에 대한 학점인증 고시 폐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 다음은 “**학사·학점 운영방식**”에 관하여 건의된 내용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부터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II-2. <학습자 지원시스템 구성>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 다음은 “**온라인시스템 구축 항목**”에 관하여 건의된 내용입니다. 아래 6개 항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부터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요소	우선 순위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항목	1. 학사기능 시스템 구축 (예) 학사일정, 수업, 전공, 등록금, 강의평가 등	
	2. 학생활동 시스템 구축 (예) 커뮤니티, 교류 네트워크 등	
	3. 시간제등록제 운영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4. 대학의 독립적인 시간제등록제 홍보 및 모집 시스템 구축	
	5.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 다음은 “**학습자 지원 항목**”에 관하여 건의된 내용입니다. 아래 10개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5개**를 선택하시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요소	우선 순위
학습자 지원 항목	1. 학교 시설·서비스에 대해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지원 (예)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2. 시간제등록생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지원 (예)보육지원, 야간행정지원	
	3.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	
	4. 별도반 편성 운영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5. 시간제 등록제 학생 대상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대출)	
	6. 학습 및 경력개발 관련 상담 지원	
	7.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지도교수제 의무화	
	8. 현장실습 관련 서비스 제공 활성화	
	9.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및 학습이력 관리	
	10. 시간제등록생을 위한 동아리 및 학생회 조직 운영 및 지원	

RR 2012-04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선진화 방안

발 행 2012년 9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658
팩스 : (02) 3290-298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